

‘청목회 면죄부법’ 주도한 강기정 3억2487만원 1위

(불법후원금 사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지난해 정치후원금 모금에서 1위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2010년 정당·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강 의원은 1년 동안 3억2487만원을 거뒀다. 전체 국회의원 중 최다 모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전국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있던 2006·2008·2010년은 3억원까지 모금 가능, 다른 해는 1억5000만원까지 가능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청목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하자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소액 후원금이 대폭 준다”고 꾸짖었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강 의원은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만으로 연간 한도인 3억원을 넘겼다. 그에겐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강 의원은 후원금 1위를 한 이유에 대해 “청목회 수사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대거 후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0만원 넘는 기부 1건 없이 강 의원, 소액으로만 모아 2위는 3억2031만원 박근혜 정몽준은 5934만원

한나라 1인당 1억7015만원 민주당은 1억4726만원 모금

(1086→995건), 건당 모금액수는 늘었다(13만9000원→15만6500원). 소액 후원금이 줄고 고액 후원금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다. 정당별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한나라당이 1억7015만원, 민주당이 1억4726만원이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1억3149만원과 1억6218만원이었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유정현·권경석·조진형 의원, 민주당 최규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해 한도(3억원)의 절반도 못 채웠다. 이들 의원은 “청목회 사건이 워낙 큰 파문을 일으켜 후원금을 거둘 엄두조차 못 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이어 개인 모금 2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3억2031만원)다. 이어 주호영(3억1117만원)·서상기(3억897만원)·주성영(3억627만원) 의원 등 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의원들이 3~5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는 2008년 3억6183만원으로 전체 1위를 했다가 2009년엔 상반기에 한도(1억5000만원)가 차면서 후원금 계좌를 조기 폐쇄했다가 해가 바뀌자 계좌를 다시 열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고액 기부자로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500만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500만원) 등이 있다. 남승현 남춘CC 회장(500만원), 선병석 전 뉴월드 회장(500만원), 재경 영남대 동창회장을 지낸 이시원 부천 회장(500만원) 등도 박 전 대표 후원자로 이름을 남겼다.

다른 차기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2억115만원), 정세균 최고위원(1억4785만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1억4223만원), 정몽준 전 대표(5934만원) 순으로 후원금 순위가 매겨졌다. 한나라당 김부성 원내대표(2억8699만원·29위)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2억9995만원·14위)가 30위 안에 든 것은 고액 기부금 액수가 1억원가량으로 컸기 때문이다. 정효석·김경진 기자 jipol@joongang.co.kr



강기정 의원

2010년 정치후원금 상위 20위

순위	이름	정당	모금액
1	강기정	민주	3억2487만원
2	박근혜	한나라	3억2031만원
3	주호영	한나라	3억1117만원
4	서상기	한나라	3억897만원
5	주성영	한나라	3억627만원
6	전여욱	한나라	3억594만원
7	김성희	한나라	3억555만원
8	나경원	한나라	3억369만원
9	김용태	한나라	3억351만원
10	이군현	한나라	3억266만원
11	배영서	한나라	3억207만원
12	원희룡	한나라	3억 66만원
13	김광림	한나라	3억 35만원
14	박지원	민주	2억9995만원
15	정두언	한나라	2억9984만원
16	김영환	민주	2억9961만원
17	서병수	한나라	2억9918만원
18	이철우	한나라	2억9905만원
19	김형오	한나라	2억9835만원
20	김재균	민주	2억9642만원

상한액 500만원 큰손·이색 기부 ... 누가 누구에게 김성식, 동료의원 9명이 ‘품앗이’ 신건은 아들·딸에게 후원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201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명단’에는 눈길을 끄는 고액 후원자들이 적지 않았다.



김성식 신건

500만원 이상 고액을 후원한 ‘큰손’ 기부자는 주로 기업인이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진주고후배인 한나라당 최규식 의원과 고향(경남 하동) 후배 여성규 의원, 재경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 의원에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기업인들의 고액 후원은 주로 여당에 집중됐다. 나공목 코오롱그룹 고문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둘은 코오롱 그룹 공채 1기 출신이다. (주)경동 손달호 대표와 경동나비엔 손연호 회장은 각각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에 500만원씩을 기부했다.

종교인들의 후원도 있었다.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통성기도를 하고 제언해 이 대통령의 무릎을 꿇었던 김자연 목사는 자신의 교회 신자였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게 500만원,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한나라당 이춘식의 원에게 400만원을 기부했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후원을 받은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아버지 나채성 흥신학원 이사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비례대표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본인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후원금이 부족해 후원회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아들로부터 320만원, 민주당 신건 의원은 아들과 딸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의원은 동료 의원을 후원하는 이른바 ‘품앗이’ 관행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김성식의 원은 같은 당 전제희·윤석용·박영아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 김기현 기자 emckk@joongang.co.kr

상임위 파워 이종걸·조배숙, 관련 금융기관에서 받고 공천 영향력 박대해·박상천, 시·군·구의원에게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지난해 후원금 내역을 보면 일부 의원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 있는 곳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상임위와 관련된 후원금은 기획재정부·정무위·국토해양위 등 이른바 ‘힘센 상임위’에 집중됐다. 금융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하는

재정위 소속의 민주당 이종걸·조배숙 의원은 S파이낸스 회장으로 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등이 담당한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K은행 본부장에서, 같은 당 이철 의원은 D증권사 대표로부터 역시 500만원씩을 받았다.

국토위에선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운수회사인 K고속 관계자들에게서 모두 1500만원을 받았다. 또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복 의원은 1계약회사 회장에게서 36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은 “후

원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지 업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거둔 의원도 많았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지역구(부산 연제) 구청장·시의원과 구의원 4명으로부터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받았다. 또 지역구

산하의 체육회 간부에게서도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지역구(대구 수성갑) 구의员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민주당에선 박상천 의원이 지역구(고흥·보성) 군의원 2명에게서 850만원을, 정동영 최고위원이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에게서 840만원을 각각 받았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식사전 ‘톡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까스가 차고 장이 안좋다”

2011년 3월 15일

중양일보

삼성제약 ‘톡소무’ 5일간 먹고 속 시원하게 끝났다!

삼성제약 톡소무는 정제되어 있는 장을 자극하고,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해서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굵고 시원한 배변으로 도와주며 장운동의 리듬을 되찾아 자연스럽게 배변습관을 되찾게 도움을 준다. 특히 톡소무 연구팀은 5일간 먹어보면 누구나 99.9% 직접 확인 할수 있어서, 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즉시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저저 먹어보고, 답답해하신 분들이 5일간 먹어보고, 놀라워한다고 한다. (중양일보 2011.3.15자)

며칠째 소식도 없었던 배변이 쏙! “마음 고생 무~지 했었지요”

흔히 잘먹고, 잘싸고, 잘자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설세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사람의 장(腸) 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일시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다. 요즘, 매일먹는 ‘톡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이렇게 후련해질 줄이야! 톡소무 먹길 참 잘했다.

삼성제약 톡소무! 장(腸) 기능성 제품으로 식약청에서 공식인정!

췌기담, 까스명수, 우황청심원으로 알려진 삼성제약 공업(주)의 ‘톡소무’는 인공물질을 합성물질이 아닌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현미 호분, 베타이미디당 등 수 십가지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 유사품 주의: 믿고 먹을 수 있는 한국식약청 인정 마크 확인!

제품문의: 1577-2326 (대표)

삼성제약공업(주) 톡소무

나와 가족의 건강 직접 관리합니다

서금요법강좌

원저자 유태우, 4×6배판 양장제본, 제1권 362쪽 / 정가 55,000원

위 책자를 구입하시면 서금요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해 드립니다

수지침을 더욱 발전시킨 서금요법!

서금요법은 각종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며 통증과 위험한 부작용, 후유증이 전혀 없이 안전하고 우수합니다

「서금요법강좌」는 서금요법의 최신 건강이론과 각종 기구 사용법과 질병별 각종 처방 등을 소개하였고 건강회복이 탁월합니다.

서금요법사, 수지침사 민간자격검정시험의 기본 교재입니다. 「월간 서금요법」을 일정 기간 발송해 드립니다.

체신수지침

원저자 유태우 / 신국판 / 총 418페이지 / 정가 20,000원

고려수지침의 기본 원리와 사용법, 각 질병의 건강회복법 처방을 소개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新연구

저자 유태우, 신국판, 310쪽 / 정가 17,000원

통증의 새로운 이론과 관리법과 새로운 방법들!

최신온열요법

저자 유태우, 4×6배판 양장제본, 383쪽 / 정가 55,000원

체온이 떨어질수록 병들어 사망하나, 체온이 상승할수록 건강하고 질병퇴치도 가능합니다. 온열요법의 방법과 처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고려수지침 ■ 문의처: (02)2231-3000 www.soojichim.com

■ 통신판매처: (02)2233-0841~2 ※ 전국 160여 지점들 이용 바랍니다.

중개업시외출입

무담보 무보증 대출

구매, 운영, 급여, 교환자금

대금 031-711-8781

이자율연3.8%, 수수료 범외외

성남은행금곡점 171(성남 107동)

광고안내

02)754-5566

Fax. 754-3366

금융

일부 의무 금융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설립·증자·양도·양수

010-2788-4272

부동산

전원주택

충주 개곡 주택 660㎡

중주 합3700만(033)252-4677주

영업

심부름

가정고민

사람찾음 02)354-0748

부동산 담보대출

APT, 주택, 빌라, 상가, 토지, 임야

전세계약서년 12~36%

당산동123 골드크레딧 0086

2677-9195 영등포구청역

※ 투자 상담 (법적 보장) ※

대부(돈)증개담보제공

이코노미스트

살아있는 경제 트렌드

매주 월요일 발행 / 경기구독 1588-5382

분묘개장공고(2차)

정식 분묘 개장 공고 2차 또는 같은 분묘 구역에 1차 개장 공고와 같이 공고되었으나 고지 또는 관민은 유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정해주시기 위하여, 공고기간 내 신고일을 때는 주민번호로 근무하여 관계청과에 외가 통고하여 일의 개장이정해될 예정입니다.

1. 분묘소유자 주소: 경남 창원시 생원동 171(171동)

2. 개장사유: 사산원 행사

3. 개장일: 유언으로, 현고지 및 관민이 협의 후 결정. 유언으로, 공고기간 종료 후 고지 및 관민이 결정

4. 개장시간: 경남 창원시 생원동 171-1번지 제1분묘장 생원동 171(171동) 11:00

5. 공고기간: 신년 후속공고일 후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경남 창원시 생원동 171-1번지 제1분묘장 011-599-4567

7. 기타: 1번지 관민이 유언으로 개장 공고 후 고지 및 관민이 신고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위 공고인: 최 지 현

지역총판물

정예비 1천만원

매월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수입

02)2299-2019

www.31vm.kr

책 판매

인생을

축제로 이끄는

마음의

로드맵

각 12,900원 | 문의 02)2000-5352

KOREA JOONGANG DAILY

In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중양일보 영어신문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T. 1577-0510